

“다름이 모여 즐거운 세상 만들어요”

신안 장산초, ‘다문화 축제’ 개최...인식 전환 교육 진행 나라별 의식주·전통놀이 등 체험...“이해·존중 기회 됐길”

신안군 장산초등학교 체육관이 다채로운 문화 축제장으로 변신했다. 5대륙 11개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아이들이 각국의 전통 음식을 맛보며 연신 엄지를 치켜세웠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올랐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장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장산초 다문화 축제’가 개최됐다. “다름이 모여 즐거운 세상을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축제에는 전교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국가의 의식주 문화를 접해보고, “다름”은 차이와 불편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의 영역임을 몸소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먼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이해 교육이 이뤄졌다. 체육관 바닥에

넓은 세계지도를 펼쳐놓은 아이들은 각 나라가 지리한 위치를 파악하며, 지리적 환경에 따른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와 함께 한국의 대표 음식 떡볶이를 비롯해 일본 떡꼬치 당고, 이탈리아의 피자 등 나라별 음식을 직접 만들고 먹어보는 식생활 체험도 인기를 끌었다. 또 각국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의생활 체험, 32개국의 전통 가옥 모형을 만들어 전시하는 주생활 체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고무줄놀이, 공기놀이처럼 일본의 전통 원목 교구 ‘켄다마’, 인도의 주사위놀이 ‘파치시’ 등을 팀 별로 즐기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다.

축제의 마지막은 각 교실에서 다문화 축제의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장식됐다. 입어 보고, 맛보고, 살펴본 저마다의 경험을 그림과 글로 생생하게 담아 공유했다.

정수호 학생(3학년)은 “다문화는 우리나라 문화에 다른 문화가 섞인 게 아니며,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며 “모두가 같은 사람이기에, 다른 점이 아니라 같은 점을 먼저 보려고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오장근 장산초 교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즐기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소중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다이 기자



장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세계지도를 살펴며 지리적 위치에 따른 각국의 특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국립목포해양대 ‘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MOU

디케이엠텍(주)·케이아이씨솔루션즈(주)와 맞손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최근 디케이엠텍(주) 및 케이아이씨솔루션즈(주)와 대학본부 2층 회의실에서 해양분야 메타버스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은 ▲해양선박 분야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훈련 시뮬레이터 국산화 개발 ▲효율적인 교육 훈련을 위한 교안 생성 및 교육 콘텐츠 제작 ▲국내 해기사 양성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시뮬레이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다. 차명문 디케이엠텍(주)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원희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간 간 협력 증진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市교육청, 전기관 행정 전화망 통합한다

교직원 인권보호 ARS음성안내·폭언방지 녹취서비스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교직원 인권 보호와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전화망을 오는 12월까지 통합한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전화망을 시교육청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한다. 전체 기관 내선전화 체계를 구축하고 교직원 인권 보호를 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시교육청 산하 기관들은 각각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고, 전화망 관리 인력 부재로 보안성이 미흡하다.

또 ARS음성안내 및 녹취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교직원들이 민원인 응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전화망 통합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섰다. ‘행정전화망 통합 통신사업자 선정 사업’ 입찰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주)KT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전화망 통합과 함께 전화망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안성 및 관리성 향상 ▲전화요금 시교육청 일괄 집행 ▲교육청 산하

전기관 상호 간 무료 통화 ▲교직원 선택 녹취 및 안심번호 서비스 ▲기관별 ARS 음성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은 달라지는 전화서비스와 관련한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해 교육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이번 행정전화망 통합사업으로 폭언방지 녹취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교직원들에게 제공해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교직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반시설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지스트 아카데미, 6월 조찬포럼 개최

‘탄소중립 위한 지방정부·기업·시민사회 역할’ 주제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아카데미는 26일 “오룡관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표 기업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6월 조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의 연사로 나선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과도한 화석 연료 사용으로 1980년대에 이미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초과됐고, 그 후 40년이

지난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임을 알리며 강연을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부터 폭염, 산불, 태풍, 홍수 등 잇따른 기후 재난이 발생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최 이사장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실행 계획이 미흡해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한국경제가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상황”이라며 지

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15분 거리 안에 생활권이 조성된 ‘15분 도시’, 친환경 교통체계, 건물 단열 등을 통해 ‘에너지 제로 도시’를 목표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기업 역시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과 사회 책임, 거버넌스를 지키는 기업 철학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열 이사장은 “시민사회는 기후비상 시대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유엔 환경 계획이 제안한 기후·환경 실천 10계명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김다이 기자

광주대 국토역사유적탐방단 울릉도·독도 6박7일 대장정

광주대학교 ‘2023 국토역사유적탐방단’(사진)이 6박7일간의 울릉도·독도 탐방대장정에 올랐다.

26일 광주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재학생 56명과 교직원 8명 등 64명으로 구성된 광주대 울릉도·독도 탐방단이 포함 호미곶에서 출정식을 갖고 일출관람을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돌입했다.

탐방단은 지난 23일 해파랑길 15코스



(17km), 포스코 등을 경유하는 해파랑길 16코스(18km) 장거리 도보 행진을 벌이며 호미곶 일원 답사와 탐방 활동을 마쳤다.

이후 울릉도로 이동해 이날까지 울릉도·독도에 산재한 비경을 둘러보고, 독도가 명백한 한국 영토임을 천명한

영토 표석 관람과 독도의용수비대와의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의 독도 수호 노력 등을 확인한다.

27일에는 경상북도 경주로 장소를 옮겨 울지 및 침성대 야경을 관람한 뒤 28일 오전 불국사 탐방을 끝으로 6박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김다이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안전기원제 고사

시제상

제사상

고사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페